

# 조선대 위기 극복 고강도 구조개혁 착수

### 재정·조직 슬림화로 155억 감축... 전 구성원 고등분담 공감대 학사·행정조직 감량과 인건비 감축 '경영혁신 3대 원칙' 확정

조선대학교가 고강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최근 '위기상황'을 전 구성원이 공감하고 고등분담을 전제로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로 평가돼 그 성과가 주목된다. 조선대는 최근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25일부터 2단계 평가를 받는다.

조선대는 24일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재정·조직 슬림화로 155억여원을 감축하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안이다.

경영 혁신안에는 세부적으로 인건비·인력구조 10% 감축을 포함한 학사·행정단위 내실화 추진을 바탕으로 '총예산대비 인건비 비율(현행 47.24% → 40.56%)' 및 '등록금수입대비 인건비 비율(70.6% → 60%)'을 큰 폭으로 낮추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대학측은 "이번 경영혁신안은 교육부와 지역사회에 대학혁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구조개혁 5대 원칙 발표의 후속 세부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혁신 3대 원칙은 학사·행정조직 감량과 인건비 등으로 압축된다. 이는 그동안 방만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온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학사 부문에서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연계한 학사관리 내실화로 42억 여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유사교과목 통합 및 강의 최소단위 강화 ▲보직교원 강의책임시간 조정 ▲단과대학과 산하기관 책임경영제(교육, 연구, 재정, 사회공헌) 시행 등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대는 구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력구조 개편에서도 조직 슬림화로 30억여원을 감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직원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데 공감대가

- 경영혁신안 세부내용은**
- 인건비·인력구조 10% 감축
  - 학사관리 내실화로 42억 절감
  - 유사한 교과목 통합
  - 단과대·산하기관 책임경영제
  - 교직원 보수체계 대폭 손질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17개 단과대학을 13개 이내로, 학과별 모집단위를 85개에서 50개 이내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학과 개편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년 퇴직자 등 자연 감소에 따른 신규 인력채용도 축소하기로 했다.

교직원 보수체계 개편으로 83억여원을 감축키로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대학이 재정절감 목표로 잡은 155억여원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이다. 보수체계 개편의 골자는 대학 산하 의료기관의 임상교원 인건비 80% 이상을 병원과 치과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교직원의 각종 수당(복

지비, 성과상여금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선대측은 "3대 혁신 원칙에 의한 대학 재정 155억원의 감축은 8년 전부터 진행된 등록금 동결과 2015년 이후 정원 10% 감축 누적에 따른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안과 재정 감축안은 절차에 따른 협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 감축 분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및 우수 교직원 인센티브제에도 지원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자율개선 대학(우수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2차 심사결과에서 구제되거나,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2단계 평가 대상 학교는 조선대, 순천대 등 전국 86개 대학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8000여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한다

### 광주교육청은 현장 점검 나서

폭염 속 통학버스에 홀로 남은 아동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000여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이달 중 1가지를 채택,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가

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이미 583대에 설치해 운용 중이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차 정보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 기기인 비컨을 책자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방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탐소·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광주시교육청도 폭염 속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공·사립 유치원 187곳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사립 유치원 통학버스 457대가 점검 대상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훔칠 금품이 없네" 훔길 불지른 30대 법원,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훔칠 금품이 없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훔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강진청자축제 꼭 오세요 제46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을 앞둔 24일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에서 도공이 축제 때 선보일 청자작품을 빚고 있다. 축제는 오는 28일 개막해 8월3일까지 열리며 경품추첨을 통해 1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강진청자를 제공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씨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고,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5살아이 귀 잡아들어올린 어린이집 교사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A(여·35)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B(6)군의 귀를 잡아당겨 들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날 부모에게 "선생님이 무서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으며, B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토대로 추가 피해 아동 여부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 고층아파트서 유유백 던져 차량 파손한 초등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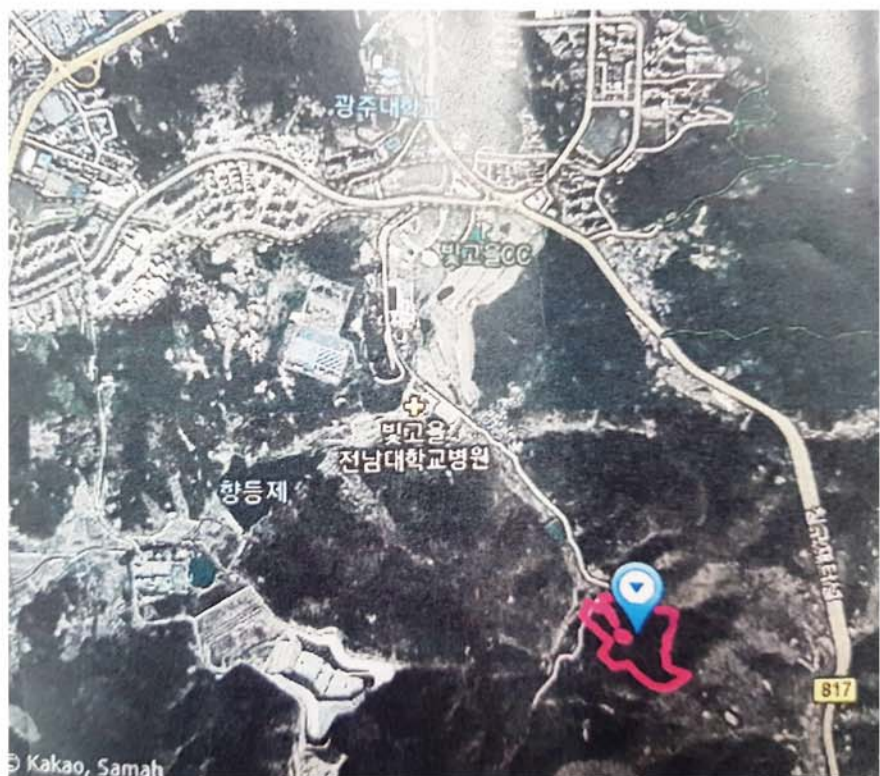
광주광산경찰은 24일 고층에서 유유백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12·초6)군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1 / 크기 유유백을 물을 담아 밖으로 던져야만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호기심에 던져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망소년(觸망少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A군 부모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돈 안값는다며 후배 외제차 몰고 갔다가 되레 경찰서행

○···30대 회사원이 '3000만원을 빌린 뒤 7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며 후배의 외제 승용차를 가져갔다가 되레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33)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골목길에 세워진 후배 이모(27)씨의 6800만원 상당

BMW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이씨가 지난 1월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담보로 건넨 BMW차량 스마트키를 받았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차를 가져가면 돈을 빨리 갚을 것 같아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